

2015 년 3 월 5 일

서울(인천)－오키나와(나하)노선 신규 취항

- 서울(인천)－오키나와(나하) 9월4일(금)부터 주7회 운항
- 판매일은 추후 발표

Peach Aviation 주식회사(이하:Peach, 대표이사 CEO 이노우에 신이치, 본사: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)는, 오늘,9월4일(금)부터, 새로 서울(인천)－오키나와(나하)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고 발표했다.

서울(인천)－오키나와(나하)노선은,주 7회로 운항을 개시, 항공권의 판매는 후일 발표 할 예정이다.

신규 노선 운항 및 증편 등. 선택의 여지가 늘어남에 따라, 더욱 많은 고객이 Peach 가 제공하는 저가 운임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.

Peach 는, 철저한 저비용을 체제로, 높은 운항 품질을 유지하며, 혁신적인 구조를 통해,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, 안정적으로 365 일 저운임을 실현시키고 있다, 이에 따라, 2012 년 3 월 운항을 시작한 이래, 불과 25 개월만에 영업 흑자를 달성하고, Peach 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.

Peach 에서는, 기존 항공회사와 다른 독자적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, 착실하게 수익을 올려, 항공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.

서울(인천)－오키나와(나하)

<운항 스케줄> 9 월 4 일(금)~10 월 24 일(토)

편명	서울(인천)출발	오키나와(나하)도착
906	15:55	18:05

편명	오키나와(나하)출발	서울(인천)도착
905	13:05	15:15

<특기사항>

- 관계당국의 허가를 전제로합니다.
- 운항 스케줄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.